

#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

(2019.5.27. ~ 6.2.)

이번 주 읽을 본문	가정	민 36 - 신 6	시 80 - 89
	개인	사 28 - 34	요이 1 - 계 4
이번 주 암송구절	바른 신학 - 다섯 오직(5) - 오직 하나님께 영광(3)		
	<p>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p>		



**요한이서 1장 / 주님의 교회를 지키라****개요**

1-4 머리말

5-11 두 가지 권면

12-13 맺음말

요한이서는 교회(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를 칭찬하며 인사를 전합니다(1-4절). 두 가지 권고를 교회에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권고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고(5,6절), 두 번째 권고는 미혹하는 자를 삼가라는 것입니다(7-11절).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입니다(7절; 요일 2:22, 4:2-3). 그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는 단호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10절). 자칫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11절).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교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다만 스테반이 그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했던 일을 기억한다면(행 7:59,60), 그들을 향해 사랑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나 지혜로운 방법조차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호한 대처를 권고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기억하며, 힘써 그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5월 28일(화)

신1	시81,82	사29	요삼1
----	--------	-----	-----

## 요한삼서 1장 /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 개요

- 1-4 인사말
- 5-12 두 가지 권고
- 13-15 맺음말

장로 가이오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 칭찬하고 기도하며 인사말을 전합니다(1-4절). 당시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처럼 다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맞이하는 일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5-8절). 그러나 그 일을 외면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 두려워 전도자를 비방하고 맞아들이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9,10절). 이 악한 자를 본받지 말고 선한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11,12절).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모두 아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합니다. 아군을 적으로 간주하여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닌 잘못된 악행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잘못을 경계하되, 더 나아가 우리는 좋은 아군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본받을 자로 삼아 따라가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우리가 서로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5월 29일(수)

신2	시83,84	사30	유1
----	--------	-----	----

## 유다서 1장 / 믿음과 공홀로 기다리는 종말

### 개요

- 1-2 인사말
- 3-16 악인을 향한 심판
- 17-25 권고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형제인(마 13:55, 막 6:3)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을 대항하여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고합니다(1-4절). 하나님은 출애굽 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음란하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며 영원한 형벌에 대해 말씀합니다(5-7절).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8-10절). 그들은 가인(창 4:1-16)과 발람(민 22-24장), 그리고 고라(민 16장) 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11-13절).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14-16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공홀한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17-23절).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사건들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경고가 되며, 사람들을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성도는 그 날을 기다리되,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자신을 지키고, 다른 이들을 공홀히 여김으로 돌이키길 바라며 지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어 흠이 없이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도록 붙드실 것입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종말에 있을 정욕과 조롱, 분열 등은 이미 주님의 지혜로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믿음과 공홀로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 30일(목)

신3	시85	사31	계1
----	-----	-----	----

## 요한계시록 1장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개요

1-8 서문

9-20 요한의 소명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주님의 교회에 편지합니다(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인데, 그 일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7,8절).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밧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거기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9-11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지칭되는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11절). 이 모든 교회(일곱 촛대 = 일곱 교회)의 주인이신 인자 같은 이가 교회를 돌보시고 감독하시는 분으로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게 하십니다(12-20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면 온 세상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좇아 살도록 격려합니다. 온 세상의 시작이시며 끝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주님의 계시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격려에 인내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5월 31일(금)

신4

시86,87

사32

계2

## 요한계시록 2장 /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1)

### 개요

- 1-7 에베소 교회에게
- 8-11 서머나 교회에게
- 12-17 버가모 교회에게
- 18-29 두아디라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며, 악과 거짓을 배격하고, 주를 위해 성실했으나, 첫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1-4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4-7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실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로서, 계속해서 충성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8-11절). 버가모 교회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나, 그중 일부는 니콜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2-15절).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16,17절). 두아디라 교회는 주를 위한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진 교회였는데,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18-21절). 그들에게도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22-29절).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 대부분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지만,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날이므로 여전히 돌이켜 주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못된 길로 치달을 때에도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능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뻐하고 바라시고 말씀하십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믿음으로 돌이켜 주님의 교회답게 서길 원합니다.

6월 1일(토)

신5

시88

사33

계3

## 요한계시록 3장 /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2)

### 개요

1-6 사데 교회

7-13 빌라델비아 교회

14-22 라오디게아 교회

사데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로서, 이름만 교회인 사람들입니다(1,2절). 그들은 그들이 받고 들은 복음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3절). 그럼에도 그들 중 깨끗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4-6절). 빌라델비아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로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7,8절). 그들의 면류관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9-13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14-16절). 그들은 죄로 눈이 어두워져서, 부족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17,18절). 그들에게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집니다(19-22절).

하나님은 교회의 각 상황을 아십니다. 각 교회가 은밀히 행하고 있는 죄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며 회개를 요구하십니다(19절). 또한 하나님은 각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아시는데, 그 수가 아주 미약할지라도 다 아시며,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4,5절). 주님은 또한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도 아십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깨우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신다는 말씀이 우리 힘이며 지혜인 줄 압니다.

### 나의 묵상, 나의 기도

### 기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아십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또한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4장 /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개요**

1-5 보좌 위에 앉으신 이

6-11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의 찬송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1,2절). 그분을 향한 묘사는 어떤 형상으로 묘사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3-5절). 하나님의 일곱 영은 완전하신 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5절). 하나님 보좌 주위로 이십사 보좌와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외치며, 이십사 장로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립니다(6-11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존재는 밤낮 쉬지 않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자기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일이 합당한 일임을 압니다.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 모두 주께 영광 돌림은 그분께 모든 주권이 있어 모든 만물이 결국 그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롬 11:36). 성도는 주께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고전 4:7),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이 마땅합니다.

**나의 묵상, 나의 기도****기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설교 노트

본문:

날짜:

--	--

## 복음과 삶 - 직업(2)

### Part 1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1. 도시 -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 Part 2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2. 마음 - 세 가지 삶의 방식
3. 우상숭배 - 가장 근본적인 죄

### Part 3 복음이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4. 공동체 - 변화의 장
5. 전도 - 대안적 도시

### Part 4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6. 직업 - 동산을 경작하기
7. 정의 - 타자를 위하는 사람들

### Part 5 복음은 우리의 영원을 바꾼다

8. 영원 - 앞으로 다가올 세상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선포한다. 단지 우리의 내적인 삶만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을 포함해서 우리의 일상 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동기, 태도,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349)

## 일터에서의 그리스도인(팀 켈러의 메시지)

우리가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음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일하든, 가족을 위해 일하든, 집에서 일하든, 밖에서 일하든, 돈을 받고 일하든, 받지 않고 일하든, 당신이 선택한 일이든, 맡겨진 임무든, 당신의 일 속으로 복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일과 분리합니다. 우리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수, 법조인, 배관공, 자원봉사자, 버스기사, 교사 등으로 일하면서 또한 매일의 일이 복음으로 빚어져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복음은 일하는 동기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혹은 지위를 얻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3,24)

이제 하나님이 우리 상사이고 고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객이시고 감독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지켜보고 계시므로 힘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오늘 힘을 다해, 창의성을 발휘하여, 마음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은사의 좋은 청지기가 되십시오. 복음을 우리 일터에서 실현시켜 보십시오.

1. 일은 좋은 것이며 존엄한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나요?

1답. 고대 그리스인들은 육체 노동이나 유급 노동을 하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고 관조하는 삶이 가장 인간적이며, 고상하며,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은 그들에게 부담과 저주였습니다.

이런 사상은 후대에도 전수되었고, 일의 등급(계급)을 만들었는데, 가령 철학자라는 '더 고상한' 일부러 낮은 위치의 서비스 직업이나 육체 노동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높은 임금을 받는 일을 하는데서 자신의 존엄성이나 정체성을 찾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거나 잘하지 못하는 직업을 택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더 높은 지위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에도 만연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전임사역(Full-time)은 은연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다른 모든 직업들은 단지 세속 직업일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입니다.

2. 하나님과 직업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3.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 외에, '복음을 일터로 가져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일터에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해보십시오.

2답. 기독교는 단순히 개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신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인간의 본성, 옳고 그름, 정의, 아름다움 및 인격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을 달라지게 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일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바꿉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모든 도덕적 가치들은 상대적이며 내세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모든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일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지배적인 패러다임(소위 대세)을 따라 생각하고 일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복음이 우리 일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단지 우리 내면 뿐만 아니라, 우리 일을 포함하여 우리 일상의 모든 일과 관련된 동기, 태도,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일상과 우리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3답.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정직한 행동을 하거나 동료에게 친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직장에서 개인 전도를 하거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주되심이 모든 직업 생활 가운데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는 그리스도인이 일에 관해 가져야 할 의미와 적용점들에 대한 예입니다.

-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갖고 일한다. 왜냐하면 우리 직업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업무에 있어 정직과 진실을 보여주며 다른 직원, 고객 또는 지역사회를 유익하게 한다.
- 귀 기울여 듣고, 공동체를 세우고, 환대를 베풀고, 겸손하게 지낸다.
- 즐거움을 늦추고 업무에 자제력과 규율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본다.
-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증진하고 자기 은사에 일치하는 직업을 찾는다.
- 경제적 정의를 지향한다.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지불하는 최소한도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 바라기는 노동자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시켜서 그들이 직업적으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번영하기를 기대한다.
- 광고나 홍보를 정직하게 한다. 물건(혹은 제품)을 알리는 데 정직하게 한다. 소비자들에게 최악의 욕망이 아니라 최선의 욕망을 채워준다.
-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생산한다. 우리 바람은 회사가 더 넓은 지역사회와 이웃이 번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 과로하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는다.

\*다음 주일에는 안식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의 존재 영역 가운데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그리고 직장, 가정생활, 습관과 태도, 교회 내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깊고 넓은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게 하옵소서.